

법사학관련 신간 안내

◎ 조윤선, 『조선후기 소송연구』, 국학자료원, 2002년 7월, 343면

우리의 삶은 현재 법의 울타리 속에서 존재한다. 모든 일상 생활이 법, 윤리, 도덕 등의 크고 작은 법적 규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실로 사회 생활 속에서 전개되는 모든 문제점들의 해결은 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법은 어떠했을까. 이 책은 조선 시대의 소송을 주제로 삼은 연구서이다. 조선시대에 소송이라는 법이 존재해야만 했던 그 당시의 사회를 조심스레 들여다보고 있다.

◎ 정광·정승혜·양오진, 『吏學指南』, 태학사, 2002년 3월, 396면

《吏學指南》은 행정실무인 ‘吏學’ 연구자들의 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학’은 행정과 법률 등에 대한 기초지식과 특수용어에 대한 지침서이다. 원대 편찬된 《吏學指南》은 조선전기에 우리 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 책은 解題와 함께 본문과 표제어 색인 및 규장각 소장 《吏學指南》 본문을 영인·수록하여 연구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본서를 활용한 연구가 많이 나와 우리의 법률용어와 법학의 역사를 탐구하는 훌륭한 노작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 최종고, 『한국법사상사』, 전정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년 3월, 510면

1989년에 발간된 초판을 보완하여 발간하였다. 법은 단순한 기술과 제도가 아니라 인간의 사상과 정신적인 표현이라는 기본시각에서 한국인이 법을 개선·발전시키려고 노력해 온 발자취를 역사적으로 추적하였다.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한국 법사상의 인물, 사건, 문헌 등을 집대성하여 통사서로서 체계화하였다.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편, 『完營日錄(3)』, 2002년 6월.

《完營日錄》은 실학자인 徐有榘(1764~1845)가 1833년 4월 10일부터 1834년 12월 30일까지 全羅道 觀察使 兼 兵水節度使 都巡察使 全州府尹으로 수행한 업무를 일지형태로 기록한 문헌으로, 3책으로 해제와 함께 발행하였다(해제 林熒澤 교수). 기본적으로 지방행정에 대한 기록이지만, 당시 지방관이 그러했듯이 재판 등 司法에 대한 기록이 많다. 그리고 각종 공문서를 그대로 傳寫한 내용이 많아 원자료의 성격도 강하다. 이를 이용하여 19세기 중엽의 지방의 실정, 특히 소송과 민의 법의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法制史」 관련자료 발간

1901년 1월부터 1904년 3월까지 法部 檢査局과 刑事局에 접수된 訴狀과 請願書를 수록한 『法部訴狀』 제4권, 제5권이 발간되었다. 소장에는 殺獄, 절도, 구타, 掘塚, 관리의 瀆職, 債訟, 소유권 분쟁 등 민·형사사건이 두루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1876년 개항 이후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과 外部 같은 중앙의 외교관서와 다른 관서들 사이에 오고간 공문을 요약한 『奎章閣所藏 外交關係資料 要約』을 발간하였다. 여기에는 공문 23종 69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모두 근대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이를 이용한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